

모세 아저씨



산파 아주 잘생긴 사내아이예요.
요즘 군인들의 단속이 워낙 심하니까 조심하셔야 될거예요.

엄마 불쌍한 내 아들..
하지만 걱정하지말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거야

군인들 저쪽이다~ 저쪽이다~~ 아기 우는 소리가 난다 소리를 쫓아가라~

남편 여보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을 것 같소.

엄마 흑흑 하나님.. 제발 제발 이 아기를 지켜주세요..

나레이션 아기의 부모는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사이로 흘려보냈습니다.

공주 목욕 한 번 해볼까~
어? 저게 뭐지? 여봐라~ 저 갈대상자 좀 가져와라~
어머? 이 눈 좀 봐 너무 귀엽다! 엄마 해봐 엄마~

아기 엄마

공주 그래 그래 이름을 지어줘야겠지? 어디 보자~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널 모세라고 부르겠다.

나레이션 모세는 바로의 곁에서 왕족으로 자라났습니다.
또 훌륭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흘러갔습니다.

모세 이봐 나 잠깐 피라미드 건설현장에 좀 다녀올게.
얼마나 지었는지 궁금하거든.

시종 네 알겠습니다.

애굽인 뭐해! 지금 뭐하는거야! 빨리 끝지 못해??!! 뭘 꾸물거리고 있어!!

히브리인 하아.. 잠시만.. 잠시만 쉬었다 합시다.
밥도 안 주고 이렇게 일만 시켜도 되는거요?

애굽 뭐야!? 이 건방진 녀석! 그래! 내가 널 평생 누워서 쉬게 해주마!

히브리인 으악! 으아~!

모세 아니 이 놈들!! 그만두지 못해?!!

나레이션 모세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이집트인을 돌로 쳐죽였습니다.

모세 에잇! 죽어라!



바로왕

뭐야? 모세가?? 우리 군인을 돌로 쳐죽였다고?

이놈이 결국!... 당장 모세를 잡아와라!!

나레이션

왕족으로 살았던 모세는 졸지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군인들의 추격을 피해 미디안 땅까지 도망쳤습니다.

모세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흑흑

사람1

저 사람이 누구야?

사람2

저 양치는 사람? 저 사람은 이집트사람인데,
작년에 르우엘제사장의 사위가 돼서 우리랑 함께 지내고 있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해.

나레이션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온 모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채
양을 치며 광야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후로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를 배우게 됩니다.
어느덧 그는 80세의 노인이 되어있었습니다.